

중국박물관들의 전시환경 변화

나 선 화*

목 차

1. 박물관의 위치와 건축외형
2. 전시설계
3. 역사유적 현장 박물관「南宋官窯博物館」

중국과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된 후 1990年代 初부터 우리의 많은 박물관 관계 인사들도 중국방문의 발길이 잦아지게 되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실시된 많은 중국답사는 중국의 역사문물을 그 본토에서 실견하게 됨으로써 동양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90年代 初 중국의 역사문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전시환경은 중국역사문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없는 일반인에게 그 역사성과 예술성을 인지는시키는데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력 있는 歐美선진국들 여러 나라 박물관과 日本의 세심한 전시기법을 답습하고있는 우리 박물관 전문인들조차 중국 박물관의 전시설계·전시기법을 과소평가하게 하였고 대학박물관협회의 중국박물관 전시환경답사에 대하여 한때는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할 정도였다.

중국은 서구와의 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1985년경부터 서구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박물관의 개축에 힘을 기울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박물관의 전시환경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우리가 방문한 上海·南京·浙江省의 신축 박물관은 그 전시설계와 전시기법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1999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의 제 2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위원회가 방문한 양자강 남쪽 上海·남경·소주·항주·영파 5개 도시의 박물관은 대외에 소개되어 있는 것만 19개이었다. 이 박물관들은 중국의 역사·문화를 일견할 수 있는 많은 소장품들로 대형 전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大形박물관, 실크·자수 등 전문 분야를 보여주는 전문 박물관, 도자기

* 이화여대 박물관 학예연구원

가마터 현장, 정원 등 드러난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현장 박물관, 유적전시관, 역사적 사건·인물을 조명하는 기념관 등으로 나뉘어진다. 그 가운데 중국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펼쳐 보이는 古美術品박물관들은 대거신축 또는 개축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문을 연 이들 박물관은 그 위치, 건물의 설계, 전시설계, 전시 기법, 설비 운영에 있어서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전시품들이 도기·도자기·회화·조각·청동기·자수·玉石공예 등으로 우리 유물과 유사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전시 설계는 우리 박물관 전문인들이 참고할 부분이 많았다.

이번 답사에서 우리가 방문하였던 박물관은 5개였다. 이 가운데 상해·남경·절강성 등 3개의 박물관은 각각 1992년, 1993년, 1989년에 새로이 신축된 것임으로 이들 박물관의 위치, 전시설계, 설비 등을 소개한다. 그 다음에 발굴조사유적현장을 박물관으로 조성한 南宋官窯博物館의 전시설계도 살펴하기로 한다.

1. 박물관의 위치와 건축외형

상해·남경·절강성 3개의 박물관은 모두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립되었다. 상해박물관은 상해시의 인민 광장에 위치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출퇴근 발길이 수시로 닿으며 순환고속도로, 시내주요 간선도로가 모두 와 닿을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 또 taxi나 bus에서 내리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박물관이기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 공간에 박물관이 있다. 또한 시 정부청사와 나란히 마주보고 있어 위대한 중국의 역사문물을 관람하고 박물관 건물을 나서면 바로 시 정부청사의 필력이는 국기를 마주 대하도록 좌향을 잡고 있어 국내인에게는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외국인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단한 역사와 전통의 국가임을 새롭게 인식케 하는 다각도로 검토된 위치 선정이다.

건물의 외형은 상해 박물관이 사랑하는 段·周的 청동기 제기형태를 단순화 한 독특한 형태이다. 외형에서 그 박물관의 성격을 읽을 수 있으며 건물을 통해서도 거대하고 다양한 우수한 청동기 문화의 특성을 각인 시키는 효과가 있다. 멀리서 박물관을 내려다보면 시정부청사 앞에 항상 향을 피우는 제기가 놓여 있는 것 같은 배치는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도인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든다.

남경박물관도 남경시의 중심부 中山東路에 위치하는데 주차장과 박물관의 거리가 가까워 접근이 용이하다. 건물 자체의 외형은 단아한 목조건물의 외형선을 따라 나즈막한 건물로 설계되어 거대한 규모이지만 건물이 주는 위압감은 없고 건물로의 진입이 부드럽게 유입된다.

절강성박물관은 杭州市를 상징하는 西湖 호반에서 유람선을 타고 내리는 선착장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항주의 서호를 관광하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 들 수 있는 위치에

선택되었다. 건물은 중국의 목조건축의 외형적 특징을 단순화한 형태이나 각 전시실을 별개의 건축물로 분리시키고 그 전시실의 연결 통로는 연못 위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서호의 전각, 다리들과 조화되면서 현대적 미감으로 단순화하였는데 관람 동선을 따르다 보면 서호 주변을 산책하는 것 같이 서호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설계이다.

절강성 박물관도 상해나 남경 박물관처럼 건물의 외형에서 위용을 떨치거나 시민의 발길이 닿기 힘든 동선을 만들어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 새로이 신축된 박물관들은 모두 건물의 외형설계에 있어서 간결하면서도 중국문화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또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도 차분하고 소박한 외형이었고 건축비의 예산도 경제적이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2. 전시설계

1985년 이전 중국의 대부분 지방 박물관들은 北京의 故宮博物院처럼 明·靑代의 中國古建築物 內에 진열장을 놓고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사회교육장으로 활용도 중심으로 전시기획이 이루어졌기에 중국의 通史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복제품과 설명 패널을 함께 전시하여 역사교과서를 보여주는 형태이었다. 전시기획도 역사발달사 순으로 하다가 1949년 이후 사회주의 이념의 사회발달 단계 순서인 원시사회, 노예사회, 봉건사회, 근대, 현대로 하여 사회발전사를 유물로 설명하는 기획을 하였었다.

그러나 개방이후 신축된 박물관들은 각 유물들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부각시키는 전시기법으로 전환되었다. 상해박물관과 남경박물관·절강성박물관은 모두 각 유물의 주제에 따라 청동기, 도자기, 회화, 공예, 인장, 조각, 화폐 등으로 진열실을 분리하고 그 유물에 맞는 진열장, 배색, 조명을 달리하는 전시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패널과 사진, 도면을 활용하여 그 시대 역사와 문물을 설명하던 종래의 전시기법에서 탈피하여 설명문이나 설명도해는 극히 제한하고 각 유물이 발하는 예술성, 놀라운 기법을 확대 조명하는 전시방법으로 하였다. 즉 유물의 독특한 형태나 문양을 사진으로 확대하여 전시실의 배경으로 할 뿐 불필요한 설명문은 전시실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신축 박물관 전시설계의 특징이었다.

예를 들면 유물의 특성을 잘 드러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거대하고 정교한 청동기 진열실은 조명의 조도를 낮게 하고 부분적으로 강한 조명을 사용하여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섬세하고 작은 玉石공예품들은 감시의 작은 진열장과 특별히 설계된 細長한 받침대를 쓴 이등장에 진열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공예품들이 반짝이는 보석으로 조명되도록 하여 관람객의 탄성을 자아내는 전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회화 실은 전통적인 중국의 古建築 회랑처럼 만들고 목재를 사용하여 진열장을 만들었는데 고결한 선비의 서재를 방문하

는 것과 같은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다.

남경박물관의 서예전시실은 입구의 벽과 진열 실을 연결하는 코너를 서예작품의 확대사진으로 기둥을 만들어 서예작품의 먹빛의 차이와 서체에 담긴 힘이 한눈에 전해지도록 하여 서예를 설명하는 장황한 해설을 생략해도 서예작품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한 전시설계가 돋보이었다. 이는 앞으로의 미래사회가 인쇄매체가 아닌 영상, 디지털 매체로 정보가 교환되는데 그 사회구조의 변혁에 맞춘 전시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 몇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신축된 중국박물관의 전시방향은 기존의 역사 발달사 순의 역사 해설적 자료나열의 전시방법에서 탈피하여 유물의 예술성과 그 정신사를 조명하는 쪽으로 전시기획을 바꾸고 있다. 그 방법을 위하여 유물에 맞는 진열장 설계를 택하고 천장구조와 바닥재, 조명을 다 각각 달리하였는데 특히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다. 유물보존을 위하여 서화 진열장은 센서를 활용하여 관람객이 전시물에 도착하였을 때 불이 켜지도록 설계하고 있는 점등도 그 한 예이다.

상해박물관은 각 전시실마다 그 전시 설계자가 각각 다르다. 박물관 전시설계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감각이 수용되고 또 서로 조화되도록 한 중국박물관 계의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3. 역사유적 현장 박물관 「南宋官窯博物館」

항주에 있는 南宋官窯博物館은 1985년 남송시대의 가마터가 발굴 조사되어 가마터와 공방터가 드러나자 이 유적 현장을 보존하여 현장 박물관으로 조성한 것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 유적 현장을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으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가마터는 경사진 계곡에 있으므로 가마터와 공방터를 2개의 보호각으로 하여 계단으로 연계되도록 설계하였고 채광은 자연광을 유입하도록 하였다. 유적의 보존처리 기술은 우리와 비슷하여 1989년도에 이 유적을 보았을 때 보다 곰팡이 서식도 늘었고 색감의 변화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유구의 보호각은 발굴된 유적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공방터 주변의 배수로도 그대로 살리고 유적박물관의 배수시설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어서 보호각 내의 유구는 양호한 편이다.

가마터와 공방터 아래에는 별도의 전시관을 마련하여 출토된 도자기 파편, 가마도구, 도자기 원료 등을 전시하고 제작과정, 공정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당시 환경을 그림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지 전시실의 조명이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유구만 덮는 보호각만을 세우고 있다. 건축비 절감 때문인지 경기도 광주 번천리 조선백자 가마의 경우 유구 가까이 보호각 벽이 세워져 웅색한데 비하여 중국의

보호각은 규모를 넓게 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중간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그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관까지 설계한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다.

이상과 같이 지난 10년간 신축된 중국박물관들의 전시설계와 전시기법은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국문화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건축설계로 박물관건물을 신축하였고 전시기법도 세계인이 공감하는 전시품의 예술성이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보다 경제사정이 좋다고 하면서도 국민정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박물관의 전시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 서구의 전시환경, 일본의 전시기법을 따랐을 뿐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함을 지닌 우리 문화재에 맞는 전시환경조성과 연출에 연구 개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답사는 우리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보다 효과적인 전시기법·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최근 신축된 상해박물관에서는 매달 시민들의 기증이 이루어지고 그 기증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가하며 모든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시민의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의 박물관 전시 환경을 볼 것 없다고 하던 일은 10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어려운 나라 중국에서 자국 문화의 독자성을 박물관을 통하여 널리 널리 펼쳐 보이는 독창적인 전시 설계를 배워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들의 중국유적답사에서 얻은 일의 하나이다.